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한 · 중 · 일 삼국의 수입수요함수의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Import Demand Func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2018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產業大學院

經濟產業學科

朴 斌

본 논문을 박빈의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안 춘 복 (인)

위 원

정 용 수 (인)

위 원

나 호 수 (인)

2018년 6월 22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목 차

List of Tables	iii
Abstract	iv
국문요약	vi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제 2 장 한·중·일 삼국의 경제 및 무역 현황	
2.1 삼국의 경제 발전 역사	2
2.1.1 한국	2
2.1.2 중국	4
2.1.3 일본	5
2.2 삼국의 경제현황	7
2.2.1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7
2.2.2 중국의 경제발전과정	10
2.2.3 일본의 경제발전과정	13
2.3 삼국의 무역현황	15
2.3.1 한국의 무역현황	15
2.3.2 중국의 무역현황	16
2.3.3 일본의 무역현황	17
2.4 삼국의 무역 관계	17
2.4.1 중일 양국 무역 관계 현황	17
2.4.2 한·중, 한·일 무역 관계 현황	19
2.4.3 한중일 3 국 간 무역 관계 총결산	19
2.5 한중일 3 국 무역 관계의 근황 분석	20
2.5.1 한중일 3 국 간 무역 관계 강화 이유 분석	20
2.5.2 삼국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21

제 3 장 이론적 배경	
3.1 수입수요이론	24
3.1.1 수요적 이론	24
3.1.2 생산적 이론	25
3.2 수입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선행연구들	26
제 4 장 실증연구	
4.1 모형의 설정 및 추정방식	28
4.1.1 변수의 선정 및 자료의 구성	28
4.1.2 모형의 구성 및 추정 방식	28
4.2 실증 분석	28
4.2.1 한국의 실증결과	28
4.2.2 중국의 실증결과	29
4.2.3 일본의 실증결과	30
4.3 삼국의 비교	31
제 5 장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34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36
참고문헌	37
감사의 글	41

List of Tables

Table 1	한국의 수출과 수입증가 현황	16
Table 2	중국의 수출과 수입증가 현황	16
Table 3	일본의 수출과 수입증가 현황	17
Table 4	한국의 수입수요함수 추정결과	29
Table 5	중국의 수입수요함수 추정결과	30
Table 6	일본의 수입수요함수 추정결과	31
Table 7	삼국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의 비교	32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Import Demand Func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Piao Bin

Department of Economy and Industry
Graduate School of Maritime Industry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Korea, China and Japan are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high growth through trade. First of all, Japan, which became a developed country after successfully developing its economy, opened its own economy abroad in 1850, and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rough trade. Korea has opened its economy since the 1960s and has grown into a developed country in the shortest time in the world. China has been implementing a bold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the late 1980s to introduce a capitalist system and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by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early 2000. The study of these economies was mainly geared to the performance of exports, but it is gradually increasing with increasing interest in the domestic marke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llect 26 years of

statistics from Korea, China, and Japan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mport demand. The import demand function was estimated to measure the price elasticity and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import demand of the three kingdoms. The following demonstration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n agreement with the theory in all three kingdoms, the price was estimated to be negative and positive in the case of income.

Second, the estimated method has been used with four estimation methods, all showing explanatory power of 80 % to 90 %, resulting in very descriptive results, and the t value of the coefficient is very good.

Third, price elasticity of elasticity was common in all three kingdoms. The price elasticity of China and Korea was around 0.5, while that of China was around 0.3.

Fourth, income elasticity is that Japan appears to be very high, while China appears almost per-uniform, while Korea shows signs of non-carbon.

Fifth, income elasticity is higher than price elasticity in all three kingdoms.

KEY WORDS: import demand function, price elasticity, income elasticity, economic development, non-electric, unit elastic, elastic

한·중·일 삼국의 수입수요함수의 추정에 관한 연구

박 빈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경제산업학과

국 문 요 약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인접된 나라로서 무역을 통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해온 나라들이다. 가장 먼저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일본은 1850년대에 외국에 자국경제를 개방하여 무역을 통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방에 나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방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해왔고 2000년 초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들 경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출의 성과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입에 대한 연구로 점차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지난 26년간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입수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삼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은 실증결과를 얻었다.

첫째, 삼국모두에서 이론과 합치되게 가격은 음의 계수가 추정되고 소득의 경우에는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다.

둘째, 추정된 방식을 4가지 추정방식을 이용하였는데 모두 80%내지 90%이상

의 설명력을 보여 매우 설명력이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계수의 t값도 매우 양호하여 1%의 유의수준에서 대부분의 계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추정되었다.

셋째, 삼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가격탄력성이 0.5정도 이었으나 중국은 0.3정도로 나타나 중국의 가격탄력성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소득탄력성은 일본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거의 단위탄력적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소득탄력성이 삼국 모두에서 가격탄력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일본의 소득탄력성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4-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가격탄력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가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가격변수보다 소득변수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정책변수로서 소득이 수입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수입수요함수를 연도별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를 분기별 자료로 수입수요와 소득, 그리고 가격자료를 조사하여 자료수를 많이 늘려 분석하면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추정방식은 4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좀 더 추정방식을 개선하여 최근에 개발된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모형을 사용하여 추정결과를 얻고 단기 탄력성과 장기탄력성을 구하여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삼국의 수입수요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태가 유사하므로 이를 연립방정식으로 하여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식을 만들어 추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수입수요함수,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경제발전, 비탄력적, 단위탄력적, 탄력적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인접된 나라로서 무역을 통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해온 나라들이다. 가장 먼저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일본은 1850년대에 외국에 자국경제를 개방하여 무역을 통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방에 나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방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해왔고 2000년 초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들 경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출의 성과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입에 대한 연구로 점차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지난 26년간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입수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삼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과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설명하며, 제2장 삼국의 경제와 무역현황을 설명하고 제3장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4장 모형설정과 변수의 선정과 그리고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에 대해 기술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중일 삼국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첫째 기존문헌을 연구하고, 둘째 수입수요이론에 대해 고찰하고, 셋째 변수선정 및 자료수집하며, 넷째 실증분석을 하고, 다섯째 삼국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 2 장 한·중·일 삼국의 경제 및 무역 현황

2.1 삼국의 경제 발전 역사

2.1.1 한국¹⁾

(1) 불안정과 회복 단계(1945~1961년).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경제는 대규모의 동요를 겪었다. 1948년 설립된 정부는 생산을 재개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은 생산 시설을 거의 파괴시켰다. 1953년 휴전 이후 미국과 유엔의 경제 원조로 3년 가까이 복구 작업을 거친 끝에 1956년에는 재건 작업을 거친 끝에 악성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 1953년 휴전 이후 미국과 유엔의 경제 지원을 통해 1956년에는 재건 사업을 상당 부분 소화해 냈고, 악성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 1954년 정부가 실시한 '유상 수용'과 '유상 분배'라는 농촌 토지 소유제 개편으로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이 시기 정부가 실시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는 1960년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했고,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0.7%씩 성장했다.

(2) 고속 성장 단계(1962~1992년).

이 단계는 또 세 개의 발전 시기로 세분되었다. 1960년대는 외향적인 경제 성장기였다. 국내 총생산(GDP)과 국민 총생산이 모두 7.6퍼센트 증가했다. 1970년대 한국이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립 경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중화학 공업 발전 시기를 앞당긴

1) <https://wenku.baidu.com/view/aea96e8ccc22bcd126ff0c43.html>

<https://baike.baidu.com/item/汉江奇迹/61816>

것이다. 동시에 산업 구조가 산업화 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1980년 광주 사태의 영향으로 식량 생산이 대폭 줄어들고, 중화학 공업의 투자를 억제하여 국민 경제의 비율을 불균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유지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GDP는 95억 달러에서 614억 달러로 5.5배 늘었고, 1인당 국민 총생산은 288달러에서 1662달러로, 수출은 10.68억 달러에서 150.6억 달러로 연평균 39.7% 증가했다. 1980년대 한국 정부는 국제 경제 여건 변화와 국내 경기 변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국민 경제를 개혁하고 경제 정책과 구조 조정을 추구했다. 1984~1985년 한국은 수출 시장인 선진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켜 수출 증가세를 둔화 시켰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낮은 금리, 저유가, 낮은 국제 금리로 수출이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은 3년 연속 11%, 1991년에는 1인당 GDP가 6757달러에 달했다.

(3) 개혁 발전 조정단계(1993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992년 중국과 수교했다. 한국이 가진 비교적 강력한 가격 경쟁력과 일본에 대한 설비 투자 증가, 수출의 큰 폭 증가 등 요소 1994년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8.6% 증가 하였고, 1995년에도 이런 좋은 추세를 유지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만 달러를 돌파했다. 1996년 한국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으로 도약한 것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보여 줬다. 하지만 1997년 10월부터는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금융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해 11월21일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고, 12월 1일 IMF와 금융구제 협약을 맺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는 연평균 8.5% 성장했고, 2001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해 3.8% 성장했다. 2002년 새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4대 경제 정책을 주창했다. 2002년 경제는 연평균 7.0% 성장했다. 2003년 3.1%, 국내 총생산(GDP)은 6012억 달러로 1인당 평균 1만 2646달러였다.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유명하며 조선업은 세계 2위, 타이어 산업은 세계 3위, 섬유 생산 및 방직업은 세계 4위,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 철강 생산 세계 6위다. 한국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²⁾

2.1.2 중국³⁾

대약진 시기

1958년 5월, 중공 8차 회의는 '의욕을 북돋아 주고, 앞장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총 노선을 채택했다. 중국 경제 문화의 낙후한 상황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하지만 객관적인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중국 경제 문화의 낙후한 상황을 신속하게 바꿀 수는 없다. 총 노선이 제시되자 당은 대약진 운동을 벌였다.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부풀리는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허베이(河北)성 쉬수이(徐水秀)현으로 연간 곡물 12억 근을 수확한 것이다. 인민일보 신문은 이런 행위에 대해 선전했다. 이런 보고서에 따른 국가별 식량 징수액이 실제 생산량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대혁명 시기

장기간의 사회 혼란 속에서 국민 경제의 발전이 더디고 경제 관리 체제가 더욱 고착되었다. 10년간 매년 100억 위안씩 투자해야 하는 소득 증대 효과로 국민 소득 손실액만도 5000억 위안에 이른다. 인민 생활수준은 기본적으로 향상되지 않았고 일부 방면에서는 심지어 약간의 하락도 있었다. 70년대부터 국제 정세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어 많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오히려 격차를 벌려 가면서 기회를 놓쳤다.

개혁 개방

개혁 개방(the reform and opening up)은 1970년대 말 중국이 도입한 개혁 경

2) Chen Xi Guo.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and Its Enlightenment to China ("technical economy and management", 06. 1996). Fuzhou, Fujian: management and wealth magazine, 1996

3) <https://baike.baidu.com/item/中国经济发展史/1977913>

제 정책, 대외 개방 정책이다. 개혁 개방은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포함한다. 중국의 대내외 개혁은 우선 농촌에서 시작된 개혁과제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시작한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중국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근본적인 방법이며, 자아 체질의 정립성과 기본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전통적인 계획 경제와는 다르다. 신중국 출범 이후 경제건설에서 고도로 집중된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했다. 이런 계획 경제 모델에는 나름대로 특징과 폐단이 있다. 소유제 형식이 갈수록 단일화되고 다양한 경제적 경영 방식과 다양한 경영 방식, 경제 관리의 결정권이 국가에 집중되고 있고, 기업들은 행정 기관의 종속물로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3 일본⁴⁾

문화 개방

문화 개방 이후 정부는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공업화와 근대화를 촉진하여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 주요 수출품은 명주실, 성냥, 전구 등 경공업 제품이다. 그동안 중공업이 발달하지 않아 무역 적자가 지속됐다. 재벌도 가세했다. 하지만 일본의 대외 전쟁을 여러 차례 외채가 늘어난 메이지 유신 이후, 경제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유럽의 전쟁에서 군수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다. 중공업이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일본과 미국은 채권국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유럽의 군수수요가 급랭하면서 외국 시장을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는 침체되었다.

4) <https://baike.baidu.com/item/日本经济>

1923년 간토 대지진 등으로 은행들의 신용 불량을 초래했고, 1927년에는 쇼와 금융 공황이 일어났다. 1930년에는 황금 수출 금지와 세계 공황 등 영향에 일본의 경제는 악화되었다. 세계 경제 불황 속에 도약한 소련 5개년 계획도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관료들은 국가 경제의 역할 강화를 주장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될 때부터 국가 경제를 통제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완전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체도가 붕괴되었다. 동시에 종신 고용과 월급제가 이때 나타났다. 전후 부흥과 고도성장 일본의 산업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군수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중공업이 살아났다. 1955년부터 중공업 발전으로 일본 경제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1968년에 일본의 경제 규모는 서독의 GDP를 넘어서 세계 2위에 올랐다.

저성장 시대

1973년 처음으로 글로벌 석유 위기가 터지면서 일본 경제를 혼란에 빠졌다. 1974년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전후 경제 성장률은 끝났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다. 일본무역은 장기적으로 무역흑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1985년 체결된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가 절상될 수밖에 없어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 1980년대 이후 금융 환경이 호황을 누리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면서 주가와 땅값이 급등했다.

장기 불황

1990년대 자산 가격이 급락하며,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한 부상 후유증 영향으로 일본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잃어버린 십년”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2년 이후 외국 수요가 상승하면서 상황이 개선됐다.

경제 회복

세계 경제의 회복은 일본의 수출 회복의 원동력이기도 한다. 기업 주문의 관

점에서 보면, 그것은 일본 경제에 대한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 효과를 반영한다. 기계류 산업의 총 주문량에서, 전년 대비 08년 상반기의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6월 총 주문량은 같은 해의 3.6%로 기록되었지만, 지난 09년간 성장률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2월 09일자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9%로 빠르게 돌아왔고 4월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제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도 일본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반영한다.

2.2 삼국의 경제현황

2.2.1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한국은 1960년 초에 세계화에 나서면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 경제는 1950년대 전쟁으로 모든 시설과 공장 및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되어 경제 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960년대 세계경제의 호황에 잘 편승하여 경제개방과 세계화에 나섬으로써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 노동집약적 상품에 특화하여 저렴한 인력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수출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1980년대부터는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매우 빠르게 자본집약적인 상품생산에 특화하기 시작하여 경공업 중심의 경제에서 중화학공업중심의 자본을 활용한 경제발전모델을 추구한 결과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짧은 기간에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화하면서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해 온 것이다.

2.2.1.1 한국 경제 현황

1. 2017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내수 역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출 호조에 일정 부분 기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지역 및 품목별로 보았을 때 경기 균형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 확장의 시기를 예측하

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세, 이에 대한 규제에 따른 건설.투자 부문의 위축, 미국 및 중국발 수출 관련 리스크, 체감경지와 지표경지의 괴리 지속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기는 2015 년부터 투자 주도의 성장 흐름이 2017 년까지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건설.투자 부문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건설.투자 부문은 그동안 크게 늘어난 공급 물량으로 인해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와 IT 부문에서는 기대할 수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증가세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7 년부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며, 2018 년에는 이런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 경제도 2018 년은 주요선진국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투자 아닌 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마찰과 트럼프의 통상 압력으로 인한 대미 무역이 한국 경제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인구동태이다. 한국은 2018 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든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성장 동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이미 성숙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⁵⁾

2. 한국경제는 국제유가 상승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영향 받긴 했지만, 지표가 크게 악화되진 않았다. 한국경제의 내수 부문에서, 소비는 개선흐름을 이어갔지만 투자의 증가세는 꺾였다. 이는 그 간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에, 지금 다소 조정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부문에서 수출금액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단가가 오르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수입금액 역시 마찬가지로 단가가 오르면서 그 크기가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수출입은 10 월 연휴 등을 감안하면 다소 낮아진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고용은 개선세가 둔화되었는데, 서비스업의 고용이 부진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다. 사드

5) <https://kjhlpbk.blog.me/221233407776>

갈등 등의 변수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준 것이 서비스업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채소류가격 급락,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4분기 중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근원인플레이션은 1% 중반 수준을 지속했다. 6)

2.2.1.2 일본과 한국의 국내 총생산의 변화 추세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개발 동향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GDP)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체제를 다른 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등 많은 유사한 재무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7)

하지만, 한국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일본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투자 은행 제도는 부실 대출을 줄이고 기업지배 구조 개혁에 착수했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경제를 괴롭혔던 수많은 부실 채권과 채무자들을 줄일 수 있었다. 8)

2.2.1.3 한국의 경제 성장 이유

게다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일본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 1960년대에 한국의 산업은 경제 전반이 발전되지 않았고 자원이 부족했으며 시장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포함하여 시작되었다. 9) 이때부터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수출 지향적인 경제 개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마이크 성장과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동시에, 한국은 산업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의 선진 기술을 연구하였다. 10) 게다가, 한국의 또 다른 성공적인 관행은 산업 구조에 시기적절하게 적응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을

6) Kenny, 2017, 세계 및 한국 경제 현황, 전망, 대응,

7) Cargill, T. (2005). A tale of two monetary policies: Korea and Japan. FRBSF Economic Letter.

8) same as 7)

9) Wong, H. T. (2010). Terms of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Japan and Korea: An empirical analysis. *Empirical Economics*, 38(1), pp: 139-158.

10) same as 7)

따랐고, 그리고 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을 경제 발전으로 옮겼고, 그것은 한국의 경제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빠른 발전을 만들었다. 11) 마침내, 1990 년대에 한국은 전 세계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경제 발전의 초점을 옮겼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였다.12)

2.2.2 중국의 경제발전과정

중국은 1980년 말 경제개방에 나서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경제규모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1980년대 신흥공업국들이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를 추구하게 되었고 사회주의 통제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경제는 빠르게 통제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변환되었고 저렴한 인건비를 기초로 한 노동집약적 상품생산에 집중함으로써 빠른 수출증가가 이루어졌고 경제성장의 속도도 10%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규모도 미국에 이어 2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최근 노동임금이 비싸짐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는 노동집약적 상품과 자본집약적 상품의 중간형태의 상품에 집중함으로써 산업의 구조개편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점차 자본의 가격이 싸지고 노동력이 비싸짐에 따라 동남아 개도국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의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고 인도의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경제와 여러 가지 노동집약적 상품에 대해 국제적인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점차 한국과 같은 중화학공업으로 경제를 재편하여 기술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상품생산으로 경제를 전환해 나가고 있다.

2.2.2.1 중국의 경제현황

11) Aoki, M. 2011. The Five-Pha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in China and Japan. ADBI Working Paper 340.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12) Sakakibara, M., & Cho, D. S. (2002). Cooperative R&D in Japan and Korea: A comparison of industrial policy. Research Policy, 31(5), pp: 673-692

중국 경제는 2 분기 6.7%성장해 2015 년 4 분기 성장률과 같다. 이 수치는 산업 생산 성장, 소매 판매, 신규 RMB 대출에 의해 주도된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높은 것이었으며 고정 자산 투자는 감소했다.¹³⁾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GDP)성장률은 1.8%로 1 분기의 1.2%증가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것은 3 쿼터에서 가장 강력한 확장이었다. 중국 국내 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9년부터 2015 년까지 9.82%로 1993 년 4 분기(13 월)에는 15%(3.8%)에 달했다. ¹⁴⁾ 따라서, 중국 GDP 의 전반적인 추세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2.2.2.2 2000 년대 중국의 경제 발전 구조

2001 년 중국이 WTO 에 가입한 이래 중국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당시에 중국은 자체 개발 구조에서 일련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이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였다. Dennis Tao Yang (2012, pp:125)은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 국내 총생산(GDP)의 35-40%수준인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대외 불균형을 동반하지 않았다. 계정 잔고는 대부분의 해에 GDP 의 2%내에서 변동했다. ¹⁵⁾ 하지만 2001 년 이후, 중국의 저축률은 빠르게 치솟았다. 2008 년까지 중국의 총 저축률은 국내 총생산의 약 50%에 달했다. 대규모의 자본 유입으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일본의 3 배인 2011 년에 거의 3 조 달러에 달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외국인 외환 보유액이 되었다. 그는 전 세계에 국가를 비축하고 있다. ¹⁶⁾ 게다가, 중국의 제조업과 천연 자원 분야도 국제화 추세를 보여 주었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화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다국적 네트워크·통신 장비·서비스 기업 중 하나다. 2005 년에는 화웨이 연간 매출이 80 억 달러

13) Trading Economics (2016) China GDP | 1960-2016 | data | chart | calendar | forecast | news.

14) same as 13)

15) Yang, D. T. (2012). Aggregate savings and external imbalances in China.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4), pp: 125-146.

16) same as 15)

에 달했다. 화웨이는 동유럽과 남유럽 시장을 개방한 뒤 서유럽과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화웨이의 급성장으로 중국 전자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¹⁷⁾

2.2.2.3 중국 경제 성장의 이유

2000년대에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포함하여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의 효과적인 투자 통제이다. 중국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정부 주도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중국의 경제 개혁은 항상 확장된 정부의 지도 따랐다.¹⁸⁾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시장화의 정도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광범위했던 중국의 지속적이고 발전은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포괄하는 다면적이며 정부 간섭의 강도였다.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 개혁을 추진하고 다원적 이해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효과적인 거시 경제 규제를 실시하였다.¹⁹⁾

투자가 중국의 수입 수요에 대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중국 30 년 동안 경제 발전의 상황과 일치한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를 늘린다. 1980년에는 중국 사회의 고정 자산 투자가 911 억 위안에 불과했고, 2007년에는 13 억 3324 만 위안으로 연평균 20.2% 증가했다. 또 1979~2007 년 중국의 누적 외국인 투자는 7945 억 7000 만 달러다. 이중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6702 억 2000 만 달러, 외국 자본 자금의 이용은 전체 자산 투자 자금의 5%이상을 차지하였다. 투자의 신속한 성장은 수입 수요의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일부 국내가 부족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원자재, 중간재 등을 수입해 들여올 수 있으며, 수입을 통해 기술을 들여올 수 있

17) English, M. & Beebe, A. (2001) Going global,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Chinese companies on the world stage.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72(4), e1.

18) Aoki, M. 2011. *The Five-Pha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in China and Japan*. ADBI Working Paper 340.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19) Yang, D. T. (2012). Aggregate savings and external imbalances in China.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4), pp: 125-146.

어 중국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외자를 활용해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를 대량으로 도입했다. 이는 투자가 수입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수출이 중국의 수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가공 무역은 수입원자재와 부품을 이용해 국내에서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무역 방식이다. 1995년 이후 가공 무역은 통상 무역을 넘어 중국의 첫 번째 무역 방식이 되었다. 가공 무역 수입액은 1981년 15억 400만 달러에서 2007년 3684억 달러로 늘었고, 가공 무역은 '대박'을 터트렸다. 소비가 중국의 수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는데, 이것은 중국의 오랜 저축 저고비와 관련된다. 중국의 소비 증가 속도가 느리다. 1992~2007년 매출액은 1조 1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으로 7배 늘었다. 이는 연평균 15%씩 성장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4.8%포인트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최근 30년간 중국의 소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2007년에는 소비율이 35.4%에 그쳤다. 국제 소비율 대비 중국은 선진국보다 20%포인트 가량 낮다. 많은 개발도상국보다도 20%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낮은 소비로 소비가 유발하는 수입 수요가 적은 데다 소비는 주로 국산품으로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 수요에 대한 소비 욕구가 적다. 중국의 수입품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품은 자본 집약적인 공산품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초보적인 제품이다. 자원 및 기술 등의 요소 때문에 이 제품들은 필수품이 되어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낮다.

2.2.3 일본의 경제발전과정

일본은 1850년대 외국에 자국경제를 개방한 이래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의 면모를 일찍이 갖추었다. 일본은 1850년대 이전만 해도 고립된 섬나라로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기술관 문물을 수입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850년대 미국의 노력으로 항구를 개방한 이후 세계 강대국들에 경제를 개방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1850년대 이후 많은 유학생들을 유럽에 파견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일본의 산업을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여 수출을 증가시켜왔다. 경제개발에 성공한 일본은 세계대전의 패

전국이 되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를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경공업생산을 늘려 수출을 증가시켰고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자동차공업으로 산업을 전환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경제침체가 거의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성장이 정체되어 왔다. 최근 2015년 이후 일본경제는 고용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활성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 지속적으로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경제가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줄어들었고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에 개방하여 산업생산에 활용하는 면에서 미흡하게 대응해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경제가 향후 부족한 인력문제와 고령화된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3.1 일본 경제 성장의 이유

1990 년대의 일본과 한국에게 경제 발전은 그들의 역사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Grimes(2006)는 1956 년부터 1973 년까지 일본에서 9.2%에 이르는 연평균 성장률을 포함해 일본 경제를 분석했다.²⁰⁾ 그 당시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은 “아시아 기적” 모델이라고 하였다. 일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합리적인 산업 정책의 개발과 이행으로 이득을 보았다. Hock Tsen Wong (2010, pp:139-158)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 정책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개발 목표의 여러 단계에서 달성될 수 있는 일정 기간에 걸친 산업 구조의 발전이었다.²¹⁾ 일본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회복기에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우선적인 산업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목적은 전기, 석탄, 전력, 조선 4 대 산업에 집중되었다. 동시에, 산업 구조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점차적으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 강화 하였다.²²⁾ 일본 경제 발전 모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기술 도입과 기술 개발

20) Grimes, A. (2006) A smooth ride: terms of trade, volatility and GDP growth. J Asian Econ 17, pp:583-600

21) Wong, H. T. (2010). Terms of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Japan and Korea: An empirical analysis. Empirical Economics, 38(1), pp: 139-158

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²³⁾ 일본은 기술 도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 도입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독특한 제품과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더욱 발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었다. 결국 일본의 산업 기술은 미국과 유럽을 빠르게 추월하며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²⁴⁾ 따라서, 일본의 경제는 1990년대까지 국가 경제와 GDP가 정점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 선진국 순위에 올랐다.

2.3 삼국의 무역현황

한 중 일 삼국만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무역의 약 16%, 세계 GDP의 약 20%,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ASEAN+3의 상품 및 서비스 통합 거래의 70%이상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또한 ASEAN+3의 GDP의 약 90%와 인구의 약 70%를 보충했다.²⁵⁾

2.3.1 한국의 무역현황

한국의 수출현황은 table 1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도에 수출이 650억불이었고 수입은 698억불로 적자상태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수출은 1723억불, 수입은 1600억불로 흑자가 되었으며 3배 이상 성장하였고 2015년에는 수출 5267억불, 수입은 4365억불로 역시 2000년에 비해 3배정도로 급성장하고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22) same as 21)

23) Sakakibara, M., & Cho, D. S. (2002). Cooperative R&D in Japan and Korea: A comparison of industrial policy. *Research Policy*, 31(5), pp: 673-692.

24) Aoki, M. 2011. The Five-Pha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in China and Japan. ADBI Working Paper 340.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5) Madhur, S. (2013) China-Japan-korea FTA: A Dual Track Approach to a Trilateral Agreement.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28(3). pp:375-392

<Table 1> 한국의 수출과 수입증가 현황

(단위:백만불)

시점	한국	
	수출	수입
1990	65,016	69,844
1995	125,058	135,119
2000	172,268	160,481
2005	284,419	261,238
2010	466,384	425,212
2015	526,757	436,499

2.3.2 중국의 무역현황

중국은 1990년대 수출이 620억불, 수입은 533억불로 한국보다 무역량이 더 적었고 2000년이 되면서 수출은 2492억불, 수입은 2250억불로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수출은 2조 2845억불, 수입은 1조 6807억 달러로 무역이 급성장하여 한국을 4배 이상의 규모로 크게 앞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2000년도 이후 무역이 급성장하고 엄청난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중국의 수출과 수입증가 현황

(단위:백만불)

시점	중국	
	수출	수입
1990	62,091	53,345
1995	148,780	132,079
2000	249,203	225,024
2005	761,953	660,206
2010	1,578,270	1,396,200
2015	2,284,480	1,680,790

2.3.3 일본의 무역현황

일본의 무역현황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1990년대에는 수출이 2876억불, 수입이 2354억불로 무역흑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2000년도에는 수출이 4793억불, 수입은 3795억불로 10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무역이 급성장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수출이 6248억불, 수입은 6483억불로 무역적자를 보여주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역은 상당히 둔화되었고 무역구조는 흑자에서 적자구조로 변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일본 경제가 1990년 이후 거의 20년간 경제가 침체되어 성장의 동력이 크게 둔화되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무역도 성장률이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어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일본의 수출과 수입증가 현황

(단위:백만불)

시점	일본	
	수출	수입
1990	287,580	235,368
1995	443,116	335,885
2000	479,296	379,510
2005	594,860	514,931
2010	769,773	692,426
2015	624,787	648,315

2.4 삼국의 무역 관계²⁶⁾

2.4.1 중일 양국 무역 관계 현황

2015년 글로벌 불황, 총체적 경제 긴축 등 문제에 인해 세계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정치 역사 문제 때문에 경제 무역 발전은 불경기 상태였다. 중국 세관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15년 중국과 일본 양

26) Trade relations and competitiveness development trend of China, Japan and Korea

국의 무역 수출입 총액은 2786.7억 달러로 중국 무역 총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일 무역 수출액은 1356.8억 달러로 무역 총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대일 무역 수입액은 1429.9억 달러로 무역 총수입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적자 73.1억 달러였다. 현재 일본은 중국 제 3위 무역 대상국으로 되었다.²⁷⁾

일본재무성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중국과 일본 양국의 무역 총액은 32.65만억 엔이고, 무역총액은 0.3%증가 하며, 일본의 대외 무역 총액의 21%였다. 그중 대중 수입은 19조 4200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증가했고, 대중 수출은 13조 2300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일본의 무역 적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5년 중국과 일본의 무역 수출입 총액은 2698.6억 달러다. 그중 중국에 대한 일본 수출액은 1092.9억 달러로 전년보다 13.6%로 감소하고 일본 수출액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수입액은 1605.7억 달러로 전년보다 11.3%로 감소하고 일본 수입액 24.9%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무역 적자는 512.8억 달러로 전년 보다 6.4%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일본 1위 무역대상국 및 2위 무역 수출국 및 1위 무역 수입국이다.

2016년 3분기까지 중국과 일본이 무역에서 무역은 안정적으로 증가 중 한 수출입이 포인트다. 중국 세관 정보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1조 3101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해 중국의 수출입 무역 총액중 7.5%를 차지했다. 수출입액은 6214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6887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중일 양국은 역사와 현실의 영향을 받았지만, 양국은 밀접한 무역 왕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 관계의 존재는 양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27) Cai Wang, Wu Zai Hua, Peng Zhuo. Research on trade relations and the influence factor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China, Japan, Japan and Japan, [J]. Journal of Changsha University, 2014 (02) pp:23-30.

2.4.2 한·중, 한·일 무역 관계 현황

한국에서 보면 중국은 한국이 부족한 국내 시장을 갖고 있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넓은 시장 판매 공간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전 세계 각국이 수출하고 싶은 대상국이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의 1위 교역국은 중국이고, 한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 최대의 목표 시장이다. 한국 상업 상관처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의 무역 수출입액은 2015년 2273억 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고, 중국의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0.2%, 대 중국 수출은 1371.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5.04% 줄었다.²⁸⁾

2016년 3분기 무역 수지는 중국과 한국의 무역 수출입 총액이 줄었다. 무역 수출입 총액은 1조 1868만 6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중국 무역 수출입 총액의 6.8%를 차지했다. 수입은 444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고 수입은 75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한국 무역 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5년 4분기 한국의 대 중국 무역 수출입 총액은 756억 달러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무역 총액은 717억 달러다. 한국은 처음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국의 무역 파트너로 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매우 밀접한 무역 거래가 있다. 양국의 무역 관계는 양국의 경제 발전과 교역 관계의 조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의 평화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2.4.3 한중일 3 국 간 무역 관계 총결산

중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양국의 무역 총액의 성장세가 나타나면 양국 무역은 양국 경제의 지속적으로 축

28) Cai Wang, Wu Zai Hua, Peng Zhuo. Trade rela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J]. Journal of Changsha University, 2014 (02): 23-30.

진 및 무역 관계의 진전을 이루었다. 한중 무역 총액은 감소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2교역국이며, 양국 교역은 여전히 밀접한 무역 관계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에 대한 2015년 4분기 교역 규모는 717억 달러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매우 밀접한 교역을 갖고 있으며, 3국 간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²⁹⁾

2.5 한중일 3 국 무역 관계의 근황 분석³⁰⁾

2.5.1 한중일 3 국 간 무역 관계 강화 이유 분석

2.5.1.1 경제 상호 보완성

한중일 3 국은 경제 발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클 수밖에 없지만 3 국 경제는 매우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경제 총량은 방대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는데 국토 면적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며, 국내 시장이 크다. 일본의 경제발전은 세계에서 앞장 서고 있고, 국내 자본이 풍부한데다가 기업 기술 수준도 높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하다. 한국은 신흥 공업국인 공업 국가들의 약진이며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일본은 자금을 집약적인 국가에 속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국가에 속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선진국 대열에 속한다. 중국은 개발 도상국으로서 자원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나라다. 일본을 경제 발전 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 영토 면적이 작다. 중국은 일본과 반면되며 넓은 국토 면적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이로써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가 윈윈(win-win)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양자 간에 과도한 역할을 한다. 한국은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빠른 속도로 흡수한 후 생산력으로 전환해

29) Xu Mei. Sino Japanese relations under the economic vision [J]. Japanese journal, 2013 (03): 41-53.

30) Trade relations and competitiveness development trend of China, Japan and Korea

기술과 기존의 업종을 중국으로 옮겨 간다. 삼국 간에 상호 보완적인 상황이 형성되어 3 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³¹⁾

2.5.1.2 지리적 환경 및 한중일 자유 무역 지대 설립

세 나라는 인접해 있고, 3 국은 인접한 무역 우위를 가지고 있고, 3 국은 이웃 나라의 이웃이라는 점에서 3 국의 교역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어 무역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한중일 자유 무역 협정(fta)이 한중일 3 국의 경제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중일 3 국은 서로의 경제적 이익과 행동 규칙을 공유하고 3 국의 무역 협력에 가이드 라인을 부여해 3 국의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도모했다. 각국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 3 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국가 간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3 국의 동반 성장에 좋은 환경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중일 3 국의 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무역 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3 국 무역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무역 관계가 양호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³²⁾

2.5.2 삼국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2.5.2.1 경제 발전 수준의 불균형—근본적인 원인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빠른 회복과 발전을 이루었다. 일본과 한국은 지난 오십년대와 육십년대 경제의 회복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일본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며 제 2 대 경제 대국으로 되었다. 중국은 개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됐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과 사회 환경,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각기 특색 있는 경제 발전 모델이 됐다. 경제 성장에 따른 과급 효과가 나타나면서 3 국의 경제 발전 불균형

31) Pu Sheng min. The analysis of the trade effects and the predic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the China Japan Korea Free Trade Area [J]. international trade, 2001 (5).

32) Xu Mei. Sino Japanese relations under the economic vision [J]. Japanese journal, 2013 (03): 41~53.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틀림없이 삼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해 난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난제는 그들의 경제 수준의 차이와 무역 관계의 현황을 결정하였다. 33)

한국과 일본은 역시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다. 그중 일본은 첨단 기술로 세계에 앞서고 있었으며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발전은 매우 신속하며,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고 아시아 전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력은 3 국 무역경쟁에서 경제주도권을 잡았다. 한국 역시 선진국이다, 하지만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제 3 차 산업을 위주로 한다. 상대적으로 일본 경제력보다는 다소 부족하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경제는 일정한 수준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력도 부단히 경제 강국의 발자취를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으로선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세 나라의 경제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2.5.2.2 정치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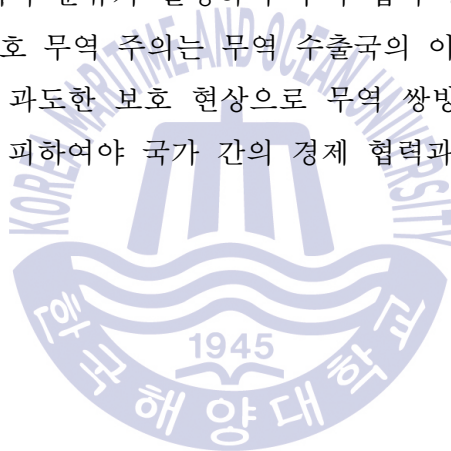
국가와 국가 간의 사회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국정은 더 이상 같지 않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은 반드시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 간 경제 무역 협력이 불가피한 한가지 사안이다. 2 차 세계 대전 일본은 아시아 많은 국가를 침략하였다. 그 중 중국과 한국이 포함되었어 중일한일의 관계가 아주 긴장하였다. 그리고 중일 다투다오 사건문제에 일제 상품을 거부하는 행위가 나타나며 양국의 외교 관계가 결렬되었다.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에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중한 양국의 최근 사건도 양국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요인은 한중일 3 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34)

33) Huo Jianguo. Using the theory of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to adjust China's foreign trade development strategy [J]. China Economic and trade guide, 2003, (10).

34) Zhang Jie. Construction of China Japan Korea Free Trade Area: progress, obstacles and

2.5.2.3 보호 무역 주의 현상

한중일 3 국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한중일 삼국의 경제에는 자국 경제에 대한 보호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경제 무역 협력 중에 종종 무역 거래와 교역 독점 사건이 발생하고, 이들은 무역 수출국의 경제적 이익과 심각한 영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느 나라든 이런 무역 덤핑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덤핑 사건들은 대부분 국가가 자국의 경제 이익 보호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발생한 것이다. 한중일 삼국에 존재하는 무역 보호 주의 현상의 이유는 삼국간 무역에 경제적 분규가 발생하여 무역 협력 중단되며 헤아리기 힘든 손실이 발생하였다. 보호 무역 주의는 무역 수출국의 이익과 자국의 경제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과도한 보호 현상으로 무역 쌍방의 관계가 마찰되었다. 그래서 방비와 분쟁을 피하여야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³⁵⁾



prospects [J]. theoretical circles, 2011, (12): 36~37

35) Bao Yan. Trade development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nd its impact on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hree Kingdoms [D]. Liaoning University, 2014 (52): 93-101.

제 3 장 이론적 배경

3.1 수입수요이론

3.1.1 수요적 이론

전통적으로 수입은 소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왔다. 거시경제적으로 수요의 구성으로 국내상품에 대한 소비수요, 국내상품에 대한 투자수요, 정부수요, 그리고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수입을 소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어왔다. 따라서 수요는 가격과 소득의 함수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과 같이 수입수요도 소득과 수입가격의 함수로 보는 것이다.

$$IM = f(RP, Y) \quad (1)$$

이 식에서 IM은 수입량이고 RP는 상대가격 즉 국내물가와 비교되는 수입가격이고 Y는 소득이다.

이 식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측정하여 비교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수용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수입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수요가 감소하는지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수요가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수입수요 함수를 더블로그형(double-log form)으로 수입수요함수를 구성하여 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수입수요와 독립변수인 가격과 소득을 자연로그를 취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여 계수를 찾아서 이 계수를 탄력성으로 해석하여 수입수요가 가격탄력적인지, 소득탄력적인지를 분석하였다. 자연로그를 취한 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log(IM) = a + b \times \log(RP) + c \times \log(Y) \quad (2)$$

이 식에서 b 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의미하고 c 는 수입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b 가 음의 값으로 나오고 c 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이 계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파악하여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1.2 생산적 이론

수입수요에 대한 생산적 접근방법은 수입이 소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은 중간재나 원료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입을 국내총생산을 위한 생산요소로 보고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많은 재화가 소비만 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재나 자본재로 수입하여 수비가 아닌 생산의 요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생산함수 식은 다음과 같다.

$$Y = f(L, K, IM) \quad (3)$$

Y 는 생산량, L 은 노동량, K 는 자본량, IM 은 수입량이다. 이러한 생산적 접근 방식은 수입을 생산을 위한 중간재의 성격으로 보고 수입수요함수를 생산요소수요함수를 도출하는 식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생산함수를 더블로그현으로 구성하여 생산요소의 산출에 대한 탄력성을 계산한다.

$$\log(Y) = a + b \times \log(L) + c \times \log(K) + d \times \log(IM) \quad (4)$$

이 식에서 d 는 산출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수요가 1%증가하면 산출은 $d\%$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값은 수요함수에서 소득탄력성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수입수요함수에서는 독립변수가 소득이어서 소득이 변할 때 수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반면에 생산함수에서는 수입수요가 변할 때 생산량이 변하는 관계를 보고 있다.

3.2 수입수요함수추정에 대한 선행연구들

수요적 접근에 의하여 수입수요를 추정하는 연구는 매우 많다. 생산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우리의 연구대상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수입수요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대한 연구로는 Baek(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수요가 단기적으로 가격과 소득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에서는 가격만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장기적인 소득탄력성은 1.88로 연구되었으나 가격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Chang, Ho and Huang(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수요는 장기적으로 소득탄력성이 1.82로 나타나고 단기에는 0.82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의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0.1 이하로 나타났다.

Truett & Truett(199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수요를 생산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입은 노동과 대체관계에 있고 자본과도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68 에서 -0.344 의 범위로 나타났고 수입수요의 산출탄력성은 소비의 경우 0.225에서 0.355로 나타났고 투자산출에 대해서는 -1.759 에서 0.537의 값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수요에 대한 연구로는 Tang(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격탄력성은 -0.6 으로 나타났고 소득탄력성은 0.73으로 나타나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Wang and Lee(2012)는 중국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중국의 장기적인 소득탄력성은 1.4로 탄력적으로 나타났고 가격탄력성은 -0.34에서 -0.53으로 나타나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Fukumoto(2012)의 중국수입수요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은 -0.64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고 소득탄력성은 1.58에서 1.67로 나타나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연구로는 Mashi and Mashi(2000)에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장기 소득탄력성은 1.28로 나타났고 가격탄력성은 -1.89로 가격과 소득탄력성이 모두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Tang(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가격탄력성은 -0.145에서 -0.791사이로 나타나 비탄력적이었고 소득탄력성은 0.191에서 1.247로 나타나 비탄력적으로도 나타나고 탄력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제 4 장 실증연구

4.1 모형의 설정 및 추정방식

4.1.1 변수의 선정 및 자료의 구성

변수는 수입의 경우 경상수입을 GDP디플레이터로 환가하여 실질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환율을 곱하여 국내통화로 측정된 실질수입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소득은 달러로 된 GDP를 각각의 환율을 곱하고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변수를 계산하였다. 수입가격은 국내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상대가격을 측정하였다, 자료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년의 연자료를 이용하였다.

4.1.2 모형의 구성 및 추정 방식

모형은 모든 변수에 로그를 취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추정방식은 OLS방식으로 추정하고 공적분(cointegration)방식을 적용하여 3가지방식으로 공적분방식의 추정을 하였다. 3가지 방식은 FMOLS(fully modified least squares)방식과 DOLS 방식(dynamic least squares) 그리고 CCR방식(ca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을 말한다.

4.2 실증 분석

4.2.1 한국의 실증결과

한국의 추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4가지 방식 모두 설명력은 767%에서 84.1%까지 높게 나타났다. t값은 가격과 소득의 계수에서는 0.01%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었다.

〈Table 4〉 한국의 수입수요함수 추정결과

	OLS방식	FMOLS방식	DOLS방식	CCR방식
독립변수	종속변수 $\log(IM)$			
$\log(RP)$	-0.532*** (-6.768)	-0.523*** (-4.694)	-0.608*** (-4.067)	-0.526*** (-4.710)
$\log(Y)$	0.909*** (9.166)	0.907*** (6.110)	0.967*** (4.159)	0.912*** (6.483)
C	6.743*** (7.181)	6.774*** (4.822)	6.287** (2.811)	6.727*** (5.065)
R2	0.841	0.767	0.801	0.767

(* 10% 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계수)

가격에 대한 부호는 음의 값을 모두 보여주고 있고 소득에 대한 계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론과 합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가격탄력성은 -0.523에서 -0.608로 나타나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1% 증가시 수입수요는 약 0.523%에서 0.608%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탄력성은 0.907에서 0.967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1%의 증가는 수입수요를 0.907%에서 0.967%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입수요함수에서는 가격이나 소득에서 모두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중국의 실증결과

중국의 추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4가지 방식 모두 설명력은 94.8%에서 95.5%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다. t값은 0.01%유의수준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었다. 가격의 경우 FMOLS방식과 CCR방식에서 유의미한 계수값을 얻지 못하였고 DOLS방식에서도 10%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Table 5〉 중국의 수입수요함수 추정결과

	OLS방식	FMOLS방식	DOLS방식	CCR방식
독립변수	종속변수 log(IM)			
log(RP)	-0.350** (-2.476)	-0.212 (-0.880)	-0.350* (-1.670)	-0.262 (-1.361)
log(Y)	1.056*** (22.369)	1.024*** (13.963)	1.056*** (17.180)	1.027*** (14.238)
C	4.329*** (11.412)	4.758*** (6.869)	4.329*** (7.745)	4.633*** (8.630)
R2	0.955	0.949	0.955	0.948

(* 10% 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계수)

가격에 대한 부호는 모두 음의 값을 모두 보여주고 있고 소득에 대한 계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에서도 이론과 합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가격탄력성은 -0.212에서 -0.350로 나타나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의미한 계수를 고려할때 가격이 1% 증가시 수입수요는 약 0.35%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탄력성은 1.024에서 1.056로 나타나고 있어 약간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1%의 증가는 수입수요를 1.024%에서 1.056%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수입수요함수에서는 소득은 거의 탄력성이 1에 가까워 단위탄력적(unit elastic)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가격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득은 약간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높아 중국의 경우 가격보다는 소득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일본의 실증결과

일본의 추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4가지 방식 모두 설명력은 84.2%에서 98.3%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다. t값은 0.01%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추정

치를 얻었다.

〈Table 6〉 일본의 수입수요함수 추정결과

	OLS방식	FMOLS방식	DOLS방식	CCR방식
독립변수	종속변수 log(IM)			
log(RP)	-0.474*** (-5.241)	-0.546*** (-6.031)	-0.686*** (-15.169)	-0.533*** (-6.134)
log(Y)	4.218*** (10.549)	4.783*** (11.154)	5.771*** (27.200)	4.709*** (11.497)
C	-22.529*** (-6.602)	-27.344*** (-7.473)	-35.7577** (-19.760)	-26.712*** (-7.653)
R2	0.842	0.919	0.983	0.917

(* 10% 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계수)

가격에 대한 부호는 음의 값을 모두 보여주고 있고 소득에 대한 계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론과 합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가격탄력성은 -0.474에서 -0.686로 나타나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1% 증가시 수입수요는 약 0.474%에서 0.68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탄력성은 4.218에서 5.771%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1%의 증가는 수입수요를 4.218%에서 5.771%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입수요함수에서는 가격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득은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탄력적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높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 삼국의 비교

Table 7는 삼국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정리한 표이다. 이 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Table 7〉 삼국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의 비교

	한국	중국	일본
가격탄력성	-0.523~-0.608	-0.212~-0.350	-0.474~-0.686
소득탄력성	0.907~0.967	1.024~1.056	4.218~5.771

첫째, 삼국 모두에서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가격변동은 삼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에서 가격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낮게 나타나는 경향과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은 가격탄력성이 0.5 정도 이었으나 중국은 0.3정도로 나타나 중국의 가격탄력성이 한국이자 중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득탄력성은 일본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거의 단위탄력적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도 0.95정도에 가까워 중국과 비슷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소득탄력성이 삼국 모두에서 가격탄력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입수요가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가격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소득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가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격에 대하여보다는 소득에 더 민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소득탄력성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4-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탄력성은 중국과 매우 비슷한 탄력성으로 단위

탄력성에 가까운 값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경제가 1990년대 이후 침체된 경제상태에 머무르면서 소득의 증가가 매우 둔화된 경제를 보여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과거 일본시장이 내수시장 중심에서 점차 해외수입수요에 의존하는 경제로 바뀌어 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의 소득증가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일본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의 급증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내수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과 한국은 개도국에서 수입수요증가와 소득의 증가가 동시에 빠르게 성장해온 나라로서 소득증가와 수입증가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해 오면서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거의 비례하게 수입수요가 증가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고도성장과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수요증가가 매우 큰 폭으로 동시에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가격탄력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가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제이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뀐 경제이어서 국가적인 통제경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 낮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 5 장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수입수요함수를 구성하는데 소비적 측면의 수입수요함수를 구성하였고 수입수요는 상대가격과 소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함수의 형태는 더블로그모형으로 가정하여 함수를 추정하였다. 수입과 소득은 삼국모두 자국의 환율을 적용하여 자국화폐기준으로 변수를 변환하고 국내물가를 적용하여 명목변수를 실질변수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상대가격은 수입가격지수를 GDP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상대가격으로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기간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7년의 수입수요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모두에서 이론과 합치되게 가격은 음의 계수가 추정되고 소득의 경우에는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다. 이런 결과는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수입수요는 음의 영향을 받고 소득은 수입수요에 양의 영향을 주는 현상이 추정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추정된 방식을 4가지 추정방식을 이용하였는데 모두 80%내지 90%이상의 설명력을 보여 매우 설명력이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계수의 t값도 매우 양호하여 1%의 유의수준에서 대부분의 계수가 의미있는 결과로 추정되었다.

셋째, 삼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가격변동은 삼국에서 수입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비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가격탄력성이 0.5정도 이었으나 중국은 0.3정도로 나타나 중국의 가격탄력성이 한국이자 중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소득탄력성은 일본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거의 단위탄력적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

국의 경우도 0.95정도에 가까워 중국과 비슷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섯째, 소득탄력성이 삼국 모두에서 가격탄력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입수요가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가격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소득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격에 대하여보다는 소득에 더 민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일본의 소득탄력성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4-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경제가 내수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개도국에서 수입수요증가와 소득의 증가가 동시에 빠르게 성장해온 나라로서 소득증가와 수입증가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증가해 오면서 소비자들의 소득증가와 거의 비례하게 수입수요가 증가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고도성장파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수요증가가 매우 큰 폭으로 동시에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가격탄력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가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제이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뀐 경제이어서 국가적인 통제경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 낮은 경제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덟째,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가격변수보다 소득변수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정책변수로서 소득이 수입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이들 삼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 무역흑자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국가간에 통상마찰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삼국은 수출에 비해 수입을 늘려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런 면에서 정책당국은 소비자들의 소득반응도가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삼국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수입수요함수를 연도별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를 분기별자료로 수입수요와 소득, 그리고 가격자료를 조사하여 자료수를 많이 늘려 분석하면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추정방식은 4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좀더 추정방식을 개선하여 최근에 개발된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모형을 사용하여 추정결과를 얻고 단기 탄력성과 장기탄력성을 구하여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삼국의 수입수요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태가 유사하므로 이를 연립방정식으로 하여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식을 만들어 추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개선점이 반영되어 삼국의 수입수요를 분석한다면 더 풍부하고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시진·기석도·박환재, “한국와인산업의 수입수요구조와 FTA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179-198.

양리나, “섬유류, 섬유제품 및 의류제품 수입수요의 예측에 관한 연구”, 복식, 50(2), 2000, 29-45.

최희진·최병호·변광인, “와인수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한국외식산업학회지, 2005, 151-170.

정헌배·손의동·함영태·고성권·임병욱, “홍콩국제인삼시장의 수입수요분석”, 고려인삼학회지, 30(3), 2006, 165-171.

이재득, “조정·할당관세 대상 수산물의 수입수요 추정과 영향분석”, 관세학회지, 13(3), 2012, 25-46.



<외국문헌>

Sun, Shangyou, “An investigation of China’s import demand for wood pulp and waste paper”, *Forest Policy and Economics*, 2015, 113-121.

Kim, Hyun Seok, Jungho Baek, “Assessing dynamics of crude oil import in Korea”, *Economic Modelling*, 35, 2013, 250-263.

Zhang, Han, Jari Kuuluvainen, Ying Lin, Penghui Gao, and Ho Yang, “Cointegration in China’s log demand: Price endogeneity and structural change”, *Journal of Forest Economics*, 17, 99-109.

Wang Yi-Hsien, Jun-De Lee, “Estimating the import demand function for China”, *Economic Modelling*, 29, 2012, 2591-2596.

Fukomoto, Mayumi, “Estimation of China’s disaggregate import demand functions”, *China Economic Review*, 23, 2012, 434-444.

Tang, Tuck Cheong, “An empirical analysis of China’s aggregate import demand function”, *China Economic Review*, 14, 2003, 142-163.

Baek, Jungho, “Empirical evidence on Korea’s Import demand behavior revisited”, *Research in Applied Economics* 7, 2015, 11-20.

Tang, Tuck Cheong, “Japanese aggregate import demand function: reassessment from the bounds testing approach”, *Japan and the World Economy*, “ 15, 2002, 419-436.

Masih, Rumi Abul M. M., “A reassessment of long-run elasticities of Japanese import demand”, *Journal of Policy Modelling*, 22(5), 2000, 625-639.

Truett, Lila J. and Dale B. Truett, “The demand for imports in Korea: a production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56, 1998, 97-114.

Aoki, M. 2011. *The Five-Phase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in China and Japan*. ADBI Working Paper 340.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vailable at: www.adbi.org/workingpaper/2011/12/30/4836.five.phases.economic.dev.evolution.prc.japan/)

Beebe, A. et al. (2015) "*Going global: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Chinese companies on the world stage.*" New York: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School of Management at Fudan University.

Boltho, A., & Weber, M. *Did China follow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The Europea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6(2), 2009, 267-286. (Available at: <http://doi.org/10.1017/CBO9781139962858.009>)

Cargill, T. (2005). *A tale of two monetary policies: Korea and Japan.* FRBSF Economic Letter. (Available at: <https://ideas.repec.org/a/fip/fedfel/y2005iapr15n2005-07.html>)

English, M. & Beebe, A. *Going global,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Chinese companies on the world stage.*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72(4), 2001, e1.

Grimes, A. *A smooth ride: terms of trade, volatility and GDP growth.* J Asian Econ 17, 2006, 583-600

Sakakibara, M., & Cho, D. S. *Cooperative R&D in Japan and Korea: A comparison of industrial policy.* Research Policy, 31(5), 2002, 673-692.

Trading Economics (2016) *China GDP | 1960-2016 | data | chart | calendar | forecast | news.* (Available at: <http://www.tradingeconomics.com/china/gdp> (Accessed: 3 August 2016))

Wong, H. T. *Terms of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Japan and Korea: An empirical analysis.* Empirical Economics, 38(1), 2010, 139-158.

Yang, D. T. *Aggregate savings and external imbalances in China.*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4), 2012, 125-146.

Chen Xi Guo.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and Its Enlightenment to China. Technical economy and management, 1996(06).

Cai Wang, Wu Zai Hua, Peng Zhuo. *Trade rela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J].* Journal of Changsha University, 2014 (02), 23-30.

Xu Mei. *Sino Japanese relations under the economic vision [J].* Japanese journal, 2013 (03), 41-53.

Pu Sheng min. *The analysis of the trade effects and the predic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the China Japan Korea Free Trade Area* [J]. international trade, 2001 (5).

Huo Jianguo. *Using the theory of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to adjust China's foreign trade development strategy* [J]. China Economic and trade guide, 2003 (10).

Zhang Jie. *Construction of China Japan Korea Free Trade Area: progress, obstacles and prospects* [J]. theoretical circles, 2011(12), 36~37

Bao Yan. *Trade development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nd its impact on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hree Kingdoms* [D]. Liaoning University, 2014 (52), 93-101.



감사의 글

논문 설계 과정에서 나호수 교수님은 제목 선정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세심한 지도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연구에서 교수님의 엄격한 학문적 태도와 풍부하고 심오한 지식, 날카로운 학문적 사고, 좋은 일 태도는 저의 평생 학습의 모델입니다. 지도교수님의 깊고 깊은 학식과 엄격하고 현실적인 배움의 정신이 영원히 저를 고무시킬 것이다. 저의 아버지 박송학씨, 어머니 방해옥씨가 그동안 길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없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안춘복 교수님과 정용수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삼가 교수님께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공부와 생활에 도움을 주신 정치환 형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어 이 논문을 검토하시고 논평을 하시며 논문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在本次论文设计过程中，羅昊洙教授对该论文从选题，构思到最后定稿的各个环节给予细心指引与教导，使我得以最终完成毕业论文设计。在学习中，教授严谨的治学态度、丰富渊博的知识、敏锐的学术思维、精益求精的工作态度以及侮人不倦的师者风范是我终生学习的楷模，导师们的高深精湛的造诣与严谨求实的治学精神，将永远激励着我。最后，感谢我父亲朴松鹤，母亲方海玉一直以来对我的养育之恩。没有他们，也就没有现在的我。在过去的两年里，收到了许多教授包括安春福和鄭容守教授支持和帮助。在此，谨向教授们致以衷心的感谢和崇高的敬意。我还要感谢鄭致桓哥哥，在我初次来到韩国至今一直在学习和工作生活上给予我帮助。最后，我要向百忙之中抽时间对本文进行审阅，评议和参与本人论文答辩的各位教授表示感谢。

During the design of this thesis, Professor Nah Ho-soo gave me the careful guidance and teaching of the thesis from the topics of the topic to the final finalization, so that I could finish the graduation thesis design. In the study, the professor's rigorous academic attitude, rich and profound knowledge, sharp academic thinking, good work attitude and indefatigable teacher's style are the models of my lifelong learning. The profound and profound attainments of the tutors and the strict and realistic spirit of learning will inspire me forever. finally, thanks to my father Piao Songhe and mother Fang Haiyu for their kindness to me. Without them, there would be no me now. In the past two years, many professors including Ahn Choonbok and Jung Youngsoo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ir support and help. I also want to thank Jung Chi-hwan brother for helping me in my studies and work life since I first came to Korea. Here, I would like to thank all persons for taking time to review this paper, to comment and to participate in my thesis process.